



# 지구촌 양계뉴스

## 한국

아시아·태평양 군진의학 대회 내년 4월 서울서 개최

국군 의무사령부(사령관 김상훈 소장)는 2009년 제19차 아시아·태평양 군진의학 학술대회(APMMC)를 내년 4월 미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APMMC(Asia-Pacific Military Medicine Conference)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 또는 우호국들이 군진의학 분야 주요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친목의 장으로 1990년에 시작해 올해 싱가포르에서 제18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PMMC 참가국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37개국이며 주요 연구 발표과제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에이즈, 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감시체계 예방 의학, 전염성 질환, 평화유지군 파병자의 건강문제, 민간기구에 대한 의무지원 전투 의무 지원, 환자분류와 후송 의료기술, 의료 정보 등 최신 정보교류 등 군진의학 분야다.

군 관계자는 “이 회의가 개최될 경우 300명 이상의 외국군과 가족이 국내에 1주일간 체류하고 관광함으로써 한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밖에도 학술대회 일정

중에 국내 의료장비 전시장 견학이 반영돼 국내 의료관련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뉴스

## 중국

독자적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 개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의하면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지난 4월 2일 약품승인서류번호를 취득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인체용 AI 백신의 제조 기술을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적어 중국의 연구 상황은 기본적으로 해외의 주요 메이커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인가를 받은 백신을 제조한 것은 북경과홍생물제품유한공사다. 이 백신은 H5N1형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후 신 바이러스 주에 대한 백신 제조에도 신속히 대응되는 것이다. 이 관리국은 인플루엔자 백신 연구개발의 복잡함과 중요성을 고려해 일찍부터 연구개발에 개입해 왔다. 지난 3월 28일에는 특별 심사 허가프로세스의 전문가팀을 조직해 백신



기술 심사 평가를 단기간에 완료시켰다.

- CN

### 중국서도 사람간 AI 바이러스 감염 사례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 4월 8일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사람간 감염 사례를 공식 확인함에 따라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고된 AI의 인간대인간 감염 사례는 모두 약 10여건으로 거의 대부분 태국, 베트남, 터키, 캄보디아 등에서 상호 접촉이 잦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했으며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이번 중국 사례는 중국 부자간 감염 사례로 아들은 조류시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반면 아버지의 경우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으나 두 사람의 H5N1형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종류였다. 두 사람은 중국 장수성에 거주하며 아들은 24세 아버지는 52세이며, 작년 12월 한 주 사이에 AI 감염 판정을 받았고 당시 세계보건기구(WHO)의 관계자들은 “사람을 매개로 한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 부자의 가족과 친구, 동료 등 91명은 모두 음성 반응을 보여 AI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전문가들은 영

국의 의학전문지 ‘랜싯’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부자간에 제한적이고 단발적인 H5N1형 바이러스 전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AI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발발을 우려하는 가운데 보건 당국자들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새로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 런던. 파리 AP, AFP

## 미국

### 탑3 브로일러기업이 시장점유율 50.9%

미국 가금잡지 ‘폴추리 USA’ 2008년 2월 호에 의하면 2007년의 미국 브로일러기업 탑3가 50.9%를 차지했다.

2007년의 대형 브로일러기업 38사의 주당 처리수수는 1억7,190만수, 처리중량(생체기준) 9억4,762만파운드(약 43만219톤)이었다. 1수당 생체중은 5.53파운드(약 2.5kg)로 주당 RTC(가식 내장부 도체) 총생산량은 7억 3,558만파운드(약 33만3,953톤, 전년 대비 약 0.1% 증가)였다. 작년의 미국브로일러업계에서는 필그림 프라이드와 타이슨 푸즈의 탑2사가 연초의 사료고로 타격을 받았으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한편 아랜 패밀리 푸드 등 중규모층 생산자에서는 증산이 두드러졌다. 15위부터 26위에 랭킹된 12사 중 9사의 RTC 생산량이 전년비

4% 이상 증가했고 특히 17위인 시몬즈 푸즈는 동 16.6% 증가했다. 랭킹의 전체에서는 14사의 RTC 생산량이 동 4% 이상 증가했는데도 이 중 9사는 「중규모층」에 해당하는 생산자였다. 다만 랭킹 자체에서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다. 탑3사의 RTC 생산량 기준 점유율은 50.9%로 작년보다 2.2포인트 감소했는데도 순위는 작년과 같은 (1)필그림 프라이드, (2)타이슨 푸즈, (3)퍼듀 팜이었다.

탑10사의 점유율은 75.8%로 작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 KM

### 동남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주범

닭 보다는 오리와 사람, 그리고 쌀이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발생한 병원성이 매우 높은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를 유발한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연구팀이 '미국립과학원보'에 발표한 2004년 초반부터 2005년 후반 사이 베트남과 태국에서 발생한 병원성이 매우 높은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이 같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에 오리와 거위, 닭의 수, 인구수, 쌀 재배, 국소 지형 등의 인자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오리와 사람의 수 그리고 쌀 재배

면적이 이 같은 지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를 기르는 패턴과 지역내 쌀 재배 면적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 오리는 주로 경작중인 쌀 찌꺼기를 먹으며 자유롭게 길러지기 때문에 많은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쌀 재배 패턴과 일치했다.

연구팀은 쌀 수확기에 돌아다니는 오리가 많은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뉴시스통신사

### 베트남

#### 조류독감 백신 임상실험 개시



지난 4월 3일 (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연구원이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 바이러스 백신 임상실험에 사용될 '플루백스' 백신이 담긴 유리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베트남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을 위한 H5N1형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했다. 

- 로이터